

CODE 5: 글의 순서

이 자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E-solution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 간접쓰기-글의 순서의 평가원의 CODE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
- E-solution 구매자가 복습할 수 있는 자료

일반적으로 글의 순서 유형을 푸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풀거나 혹은 ‘가시적인 근거를 찾아서’ 푸시는 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푸는 분들 중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거 같다’고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가시적인 근거로 푸는 분들 중에는 문항들을 풀면서 가시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평가원의 학습메뉴얼에는 간접쓰기 학습방법을 순서 문제를 예시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여**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문장들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문장 간 문법적 연결 관계나 내용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일관성과 논리적인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문장들의 순서를 정한다. 이를 위해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 고리**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 보는 연습을 한다.』

학습 매뉴얼을 보면 명시적 단서, 즉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시적인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의 연결과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의 순서 문제를 학습할 때 명시적 단서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시적 단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대명사(=지시어)
- 접속사(=연결사)
- Story telling(내용상의 연결)
- 시제(내용상의 연결)

시제의 경우 현재 글의 순서 기출문제 중 출제된 적이 전무합니다. 문장삽입 문제 중 오답의 근거로 시제를 이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명시적 단서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16 6평 기출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주어질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 평 36]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but may be passed on from any one individual to another by word of mouth or by writing.

- (A) Like those infectious diseases, cultural habits such as pop music preferences and clothing fashions may spread very quickly nowadays, especially through the media of radio and television.
- (B) So some cultural changes may be adopted quite quickly by a whole population. Transmission of culture is rather like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Flu and colds spread very quickly, especially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act that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 (C) However, other deep-root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aces and racial subgroups are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These are the cultural patterns that are so resistant to alteration that they have the appearance of being inherent.

해설 첫 문단과 (B)문단의 연결고리는 Story telling입니다. 이것이 평가원에서 말하는 ‘내용상의 연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방향(수직)으로만 전달되는 것보다, 옆으로도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수학을 인용하자면 경우의 수가 1에서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B)문단은 첫 문단과 연결됩니다. (B)문단과 (A)문단의 연결고리는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평가원에서 말하는 ‘지시어, 대명사’입니다. (A)문단의 those infectious disease가 (B)문단의 Flue and colds를 가리키며,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B)문단과 (C)문단의 연결고리는 접속사(연결사)입니다. (A)문단에서는 문화적 습관이 빠르게 퍼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C)문단에는 대조의 접속사 However를 시작으로 우리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특징은 변화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원에서 말하는 ‘연결사’입니다. 첫 문단과 (C)문단의 연결고리는 왜 성립하지 않나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C)와 (B), 혹은 (C)와 (A)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리고 수능을 풀 여러분들은 이런 틀을 가지고 공부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감이 아닌 가시적 근거를 사용해야 하며, 가시적 근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글의 논리적인 흐름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연습문제들을 올해 연계교재 변형문제와 비연계 문제입니다. 연계교재 변형문제를 풀 때도 기억으로 풀지 마시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근거를 찾았는지 파악하시고 그 후 해설지와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 고리와 논리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자!